



군종주보

2024년 6월 30일(제1200호)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께 치유 받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12년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였고, 또 다른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으면 현재 고통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늘 행복하고 기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찾아와서 내 삶을 힘들게 합니다.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여러모로 피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언제나 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고통 중에 있으면서 기뻐하거나 행복해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화가 나 있거나 짜증을 내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나약함은 다른 때보다도 고통 중일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상태가, 또는 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하혈하는 여인은 기를 쓰고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

에 손을 대었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없애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나약하지만, 하느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전능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올지, 늦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왕 하느님께 매달린 것 죽기 살기로 끝까지 매달려보아야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에도 끝이 있듯이 고통에도 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믿기로 한 거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께 매달리는 이들을 하느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박형식(2003년) 신부
한양대(제15대수원대)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지혜 1,13-15; 2,23-24

회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 2 독 시

2코린 8,7.9.13-1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음

마르 5,21-43

영성제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열다섯 번째 시집

그 후손 중 하나가 왕도(서울)에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들은 삼 형제였습니다. 맏형은 고관이 되어 따로 나가 딴 집에서 살고, 두 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다른 집에서 살았습니다. 둘째가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 베드로였습니다.

김 베드로는 24세쯤 될 때까지 그와 비슷한 운명을 타고난 처지의 자식들이 흔히 살아가는 방식대로 온갖 악덕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나이 또래들보다 훨씬 더 주색잡기로 방탕하였습니다. 그는 호기심과 사치심에서 여러 시골 지방을 유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을 첩으로 삼았는데, 자기 말로는 넷이라고 합니다.

그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처음에는 토속 신앙을 믿었다가 조선 안에 떠돌아다니는 그 밖의 모든 종교를 다 믿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종교에서도 마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종교 안에서 합당한 진리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천주교 교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천주교 교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전부 다 진리인 듯이 보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천주교 신앙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순교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서 그 종교 안에 무슨 위력이 있는 줄로 깨닫고 심사숙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천주교 교리를 가르쳐 줄 신자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친구가 그가 살던 곳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시골에 내려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험악한 산속에서 은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주교 신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 만에 그 친구가 몇몇 교우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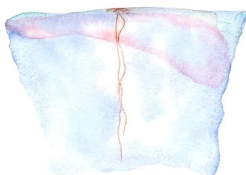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천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양

탈리다 쿵!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아이야 일어나,
밝은 오늘을 살아라.

일어나라.

내 아이야 일어나,
저 하늘을 노래하라.

일어나라.

내 아이야 일어나,
맑은 내일을 꿈꿔라.

양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레오 10세



르네상스 시대에 인물들을 이상적으로 묘사하던 그 시대 조류와 달리, 라파엘로는 인물들을 사실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중앙 의자에 앉아 있는 레오 10세는 로렌조 데 메디치의 아들로 왼쪽의 줄리아 데 메디치 추기경(후에 교황 클레멘트 7세)과는 사촌형제지간이다.

오른쪽의 루이지 델 로씨 추기경은 교황 레오 10세와 어려서부터 친한 사이로 알려졌으나 통풍으로 요절하게 되고, 레오 10세가 무척 상심했다고 알려져 있다.

라파엘로(1483년 ~ 1520년)
1518년경 제작
나무 위 유화 / 155.5x119.5cm
우피지 갤러리, 이탈리아 피렌체



▶ 레오 10세의 책상에는 자신의 부친이 소유했던 성경책과 권위를 상징하는 벨이 올려져 있다.



◀ 교황이 앉아 있는 의지에는 지구와 우주를 상징하는 구기 그려져 있다. (반사된 창문이 보인다.)

세부도 1

세부도 2

레오 10세의 재임 동안 교회는 큰 변혁을 겪는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교회는 면죄부를 찍어내었고, 루터의 개신교 사상이 전 유럽을 휩쓸면서 교회에는 큰 혼란이 발생하는데, 책상 위 성경 구절이 루카 복음이 끝나고 요한 복음이 시작하는 지점이고, 레오 10세의 이름이 지오바니(요한)라는 점과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구절을 강조함으로써 레오 10세가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은혜(벨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우림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연중 제13주일: 늘지 김경주 신부

◆ 교구장 동정

- 상송대(제7군단)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30일(주일)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